



# COVID-19 Business Report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March 2020  
삼성KPMG 경제연구원

# Contacts

##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이사

Tel: +82 2 2112 6744  
hyojungle@kr.kpmg.com

김규림  
이사

Tel: +82 2 2112 4089  
gyulimkim@kr.kpmg.com

임두빈  
수석연구원

Tel: +82 2 2112 7469  
doobeenyim@kr.kpmg.com

박도휘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0904  
dohwipark@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 Contents

	Page
<b>I. 산업별 영향 Snapshot</b>	<b>2</b>
II.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4
III. 코로나19의 기업 위기 대응 전략	23
IV.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	25

# 산업별 영향 Snapshot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경기 둔화로 인해, 한국의 실물경제를 지탱하는 금융, 자동차,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반면 소비자들의 외부 활동이 줄어들어 따라 게임·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우 일부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고 있음

##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주요 산업별 영향

품목	주요 영향	품목	주요 영향	품목	주요 영향
금융	▪ 부정적 	호텔	▪ 부정적 	유통	▪ 일부 부정적 
자동차	▪ 부정적 	패션·의류	▪ 부정적 	화장품	▪ 일부 부정적 
휴대전화	▪ 부정적 	반도체	▪ 일부 부정적 	식음료	▪ 일부 부정적 
디스플레이	▪ 부정적 	건설	▪ 일부 부정적 	영화·영상 미디어	▪ 일부 부정적 
항공	▪ 부정적 	정유·석유화학	▪ 일부 부정적 	게임	▪ 일부 긍정적 
해운	▪ 부정적 	철강	▪ 일부 부정적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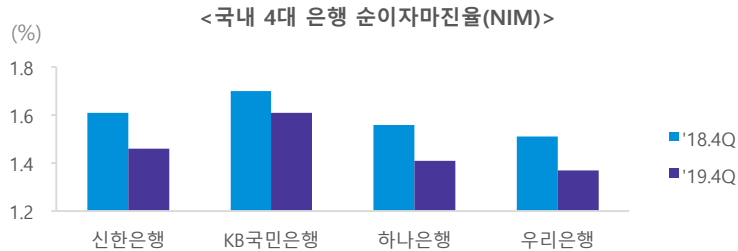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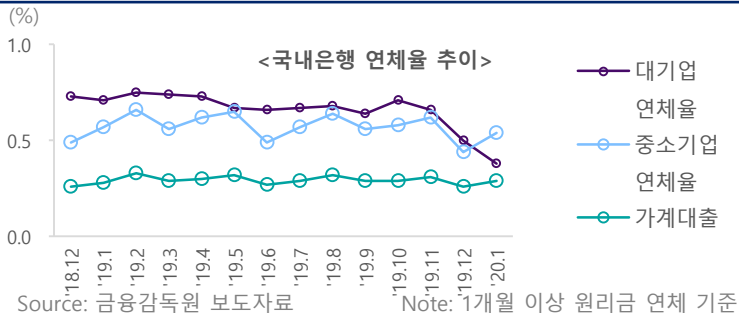
# Contents

	Page
I. 산업별 영향 Snapshot	2
<b>II.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b>	<b>4</b>
III. 코로나19의 기업 위기 대응 전략	23
IV.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	25

# 금융 》 통화정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은행 및 증권업

국내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은행 NIM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 · 연체율 상승 우려가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증권산업은 주가 하락 등에 따른 운용 실적과 IPO 시장 경색, 해외투자부문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PF 관련 익스포저 관리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은행 산업 영향



Source: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년 1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41%로 전월말 대비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 저금리 기조하 은행 순이자마진 하락세로 수익성 악화 가능
- 경기위축 장기화 시 취약층 부실로 은행 건전성 하락 및 금융권 리스크 전이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증권 산업 영향



Source: 금융투자협회

Note: 기간은 '15년 1월 2일부터 '20년 3월 23일까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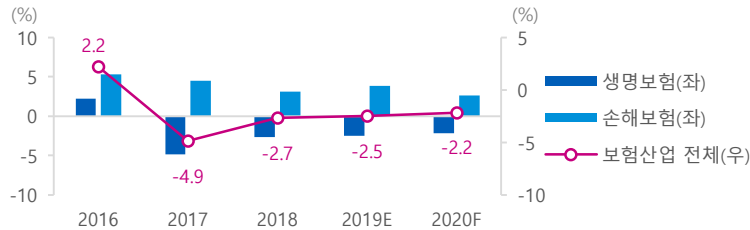
- KOSPI, KOSDAQ 지수 급등락으로 사이드카 및 서킷브레이커 발동
- 주가 하락으로 파생운용과 주식운용 실적, IB 실적 위축될 소지가 있으나, 거래대금 증가시 증권사의 중개수수료 수익은 증가 가능
- 증권시장 하락장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이 공동 출자한 증권시장안정펀드가 10조 7천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4월 초 투자개시 예정

# 금융 》 국내 보험 및 카드업계 성장 둔화 우려

국내 경기하락 시 보험산업 신규 보험판매 감소, 해약 증가와 대출채권 연체율 상승, 자산운용 수익성 감소가 우려되나, 금리인하로 RBC 비율 소폭 개선 가능. 카드사는 소비심리 위축과 소득 감소시 매출 실적 감소는 불가피하며, 대출차주 상환능력 하락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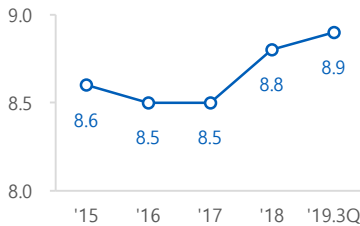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한 보험 산업 영향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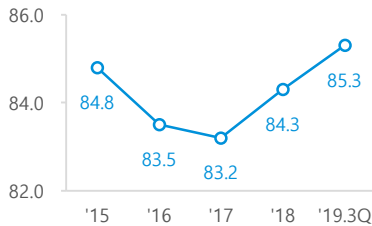


Source: 보험연구원

<생명보험 해지율>



<손해보험 손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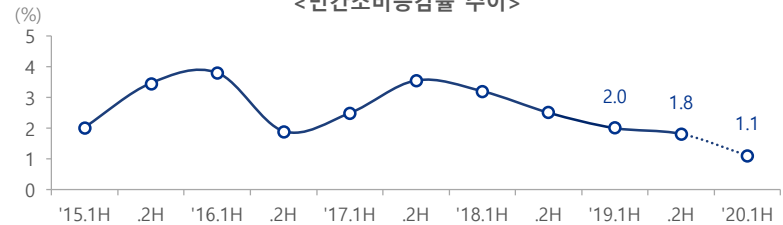


Source: 보험연구원 Note: 해지율=(효력상실액+해지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 신규 보험상품 가입 위축 및 해지율 증가, 대출채권 연체율 상승 가능
- 손해보험의 손해율 상승과 병·의원 방문 기피로 인해 보험금 청구 감소 가능성도 상존
- 금리인하로 자산운용 수익성 저하 불가피, 다만 채권가치 상승으로 RBC(Risk-based Capital) 비율 소폭 개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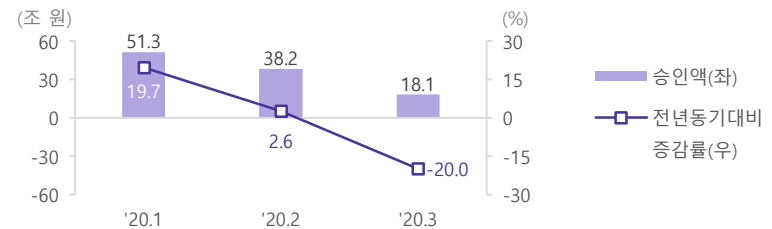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한 카드 산업 영향

<민간소비증감률 추이>



Source: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Note: '20년 상반기는 예측치임

<개인신용카드 승인액 및 증감률>



Source: 언론보도 종합 Note: 8개 전업카드사 기준, 3월은 15일까지임

- 8개 전업카드사의 개인신용카드 승인액은 온라인 부문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부문이 대폭 감소하여 '20년 3월 승인액은 전월대비 20% 감소
- 금리하락으로 조달비용 절감효과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
- 경기위축 시, 카드대출 연체 심화로 건전성 악화 가능

# 자동차 》 생산중단과 판매절벽, 위기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자국 및 해외공장 가동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상황.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우 국내외 자동차 수요 위축, 부품 공급 차질, 직원 감염 리스크의 3중고를 겪고 있음

## 글로벌 자동차 공장 가동중단 현황

<b>유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스바겐: 유럽 내 공장 2~3주간 가동중단</li> <li>• 다임러: 유럽 내 모든 공장 최소 2주간 가동중단</li> <li>• BMW: 유럽 내 모든 공장 가동중단(~4/19까지)</li> <li>• 르노: 프랑스 전국 12곳 모든 공장 가동중단</li> <li>• 현대차: 3/19부터 유럽 체코 공장 가동중단</li> <li>• 기아차: 3/23부터 유럽 슬로바키아 공장 가동중단</li> </ul>
<b>북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드: 3/19부터 3/30까지 미국, 멕시코, 캐나다 공장 가동중단</li> <li>• GM: 3/30부터 북미 모든 공장 가동중단</li> <li>• 현대차: 3/18 미국 알리바마 공장 가동중단</li> <li>• 기아차: 3/23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중단</li> </ul>
<b>인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차: 3/23부터 인도 첸나이 공장 가동중단</li> <li>• 기아차: 인도 아난타푸르 공장 중단 검토중</li> </ul>
<b>일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닛산: 3/16에 일본 가나가와, 도치기 공장 일부 생산라인 중단</li> <li>• 도요타: 해외 공장에 이어 3/24부터 일본 내 5개 공장 일시 가동중단</li> </ul>
<b>한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차: 2월에 울산 및 전주 공장 가동중단 후 정상가동</li> <li>• 기아차: 2월에 광명, 화성, 광주 전 공장 가동중단</li> </ul>

Source: 언론보도 종합

## 3중고에 처한 국내 자동차 산업

### 국내외 자동차 수요 위축

-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중단과 판매절벽으로 인해 2020년 1분기 전 세계 자동차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35% 급감할 것으로 전망(S&P)
- 2020년 2월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8.8%, 수출은 25.0% 감소(산업통상자원부)

### 부품 공급 차질

- 2020년 2월 중국산 와이어링 하니스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으며 국내 자동차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26.4% 감소
- 2020년 3월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의 평균 가동률은 50~70% 수준으로 하락함(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직원 감염 리스크

- 현대차의 울산2공장, 미국 알리바마 공장 근무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해당 공장 가동 전면 중단

Source: 언론보도 종합



## 휴대전화 》 생산, 소비 측면에서 악영향 예상

코로나19의 확산은 휴대전화 산업의 생산·소비 모든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생산 중단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초 5G 활성화로 성장과 회복이 예상되었던 스마트폰 시장도 위축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 생산 측면의 악영향-조업 중단과 부품 조달 문제

#### 중국의 생산 중단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 발생

-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19년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의 55%를 중국에서 담당
- 중국에 공장이 있는 애플, 화웨이에 큰 악영향이 예상되며, 특히 화웨이의 2020년 1월 스마트폰 출하량 1,22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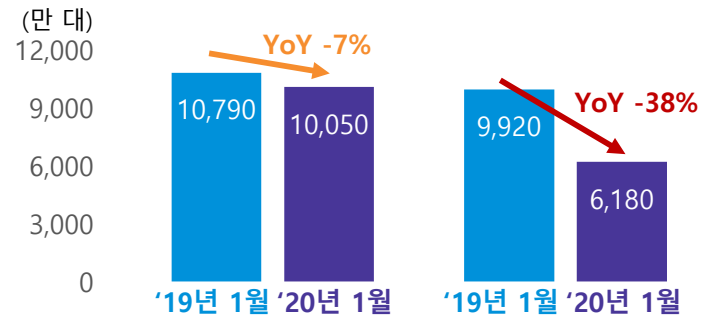
#### 국내 업체에게도 악영향이 불가피한 상황

-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수년 전부터 베트남, 인도로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이전했으나, 양사의 인도 공장이 3월 말부터 섯다운에 돌입하고 베트남도 확진자 증가
- 삼성전자는 구미 사업장 직원 확진으로 공장 가동 중단되자, 구미 생산 갤럭시S20 일부를 한시적으로 베트남에서 생산 결정
-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를 고객으로 둔 국내 소재·부품 업체와 디스플레이 기업 수출도 부진 예상

👉 국내 업체의 공장이 인도, 베트남에 있지만 이들 국가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으며, 중저가 제품용 부품들을 중국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악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

### 소비 측면의 악영향-수요 감소와 시장 위축

#### <'19~'20년 1월/2월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비교>



Source: Strategy Analytics

- 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20년 스마트폰 예상 출하량을 전년 대비 3.5% 감소한 13억 3,000만대로 수정(당초 전망치 14억 4,000만 대에서 7.6% 하향 조정)
-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20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예상치를 당초 전망 대비 10% 하향 조정

#### 향후 전망

1분기에 가장 큰 시장 위축 예상, 2분기부터는 다소 회복 기대되나 당초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 불가피

소비 심리 위축으로 고가의 플래그십 제품보다 중저가, 가성비 위주 제품으로 시장 공략 필요

# 디스플레이 《 중국의 디스플레이 생산 차질로 연쇄적 타격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우한은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대규모로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지의 디스플레이 팹 가동률이 하락. TV, 스마트폰 수요 감소로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에 납품하는 부품·장비 업체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

## LCD·OLED 패널 업계에 미치는 영향

구분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
L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이 전 세계 LCD 패널 공급의 55%를 차지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기업의 LCD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음</li> <li>글로벌 LCD 패널 생산량 감소로 공급 과잉 현상이 일부 해소되고 LCD 가격 상승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li> <li>하지만 디스플레이 패널의 공급처인 TV 제품의 수요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바, 디스플레이 판매 물량 감소가 예상됨</li> </ul>
OL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G디스플레이는 중국 광저우에 OLED 신공장을 완공했으나, OLED TV 수요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져 OLED 양산 시점이 지연되고 있음</li> <li>스마트폰용 OLED 출하량의 86%를 차지하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패널 생산 공장은 한국에 있으며, 모듈 공장은 베트남에 있어 코로나19의 영향은 아직까지 미미</li> <li>하지만 OLED 산업의 중심축인 스마트폰 수요가 줄어들어 OLED 업계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li> </ul>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디스플레이 생산과 소비 물량이 모두 감소해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

##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의 장비 계약 변경 내용

일자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고객사	계약규모 (만 원)	기존 계약 종료일	변경 계약 종료일(2023)
2/12	DMS	인핀테크	611,742	2/17	12/30
2/24	아이씨디	비전옥스	4,890,730	5/18	7/15
2/25	필옵틱스	BOE	2,916,825	2/28	5/25
2/26	디바이스이엔지	티엔마	1,194,059	3/1	4/30
3/4	에스엔유	BOE	2,554,915	3/10	10/6
3/5	참엔지니어링	HKC	157,626	3/11	6/30
3/6	SFA	티엔마	6,166,476	3/14	9/14

Source: 전자공시시스템, 언론보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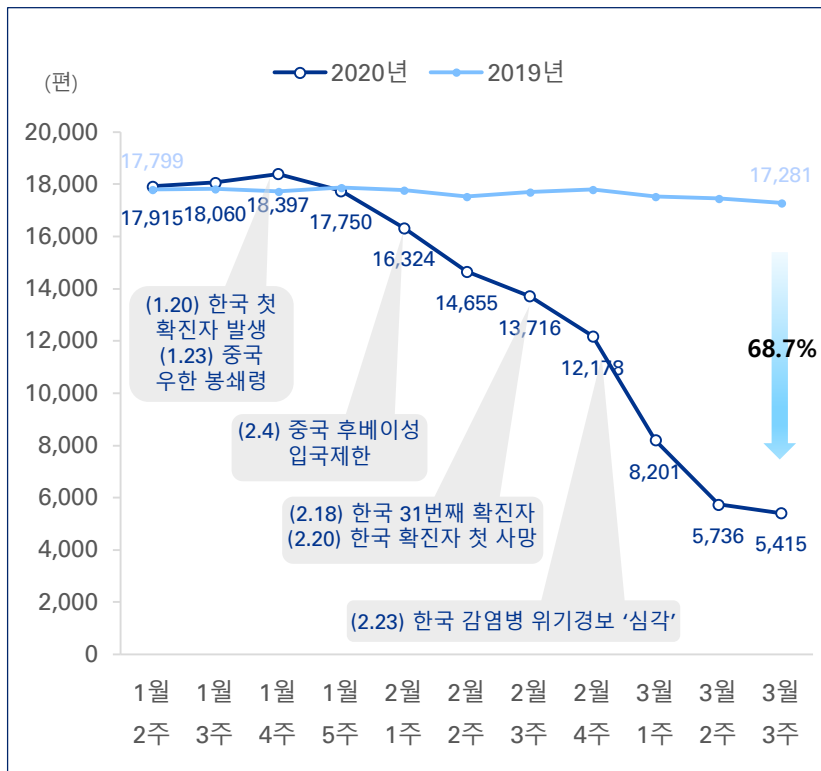
-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다수의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들은 한국 장비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규 장비 공급 계약 기간을 '20년 하반기로 미룸
- 중국 고객사의 계약 기간 연장 요청으로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들은 수십억~수백억 원의 계약금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업체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

## 항공 《 입국제한 및 여행객 감소로 직격탄 맞는 항공사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전 세계 항공사는 대규모 매출 손실을 볼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로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가 100개국을 넘어가면서 항공업 위기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

### 항공기 운항 편수 추이



Source: 한국항공협회 실시간 항공통계, 전국 출발·도착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산업 영향

####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객기 운항 중단

- 코로나19 여파로 한국발 입국 제한국이 늘어나면서 국내 항공사들은 국제선 여객기를 띄우지 못하고 있음. 실제 3월 3째주 전체 운항편수는 2019년 대비 68.7% 감소
- 저비용항공사(LCC)는 사실상 국제선 운항을 하지 않고 있으며, 대형항공사(FSC)까지 한계상황에 직면
- 대한항공은 현재 미국 유럽 노선 25개 중 9개 노선만 운항,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 사태 대비 운항 편수 8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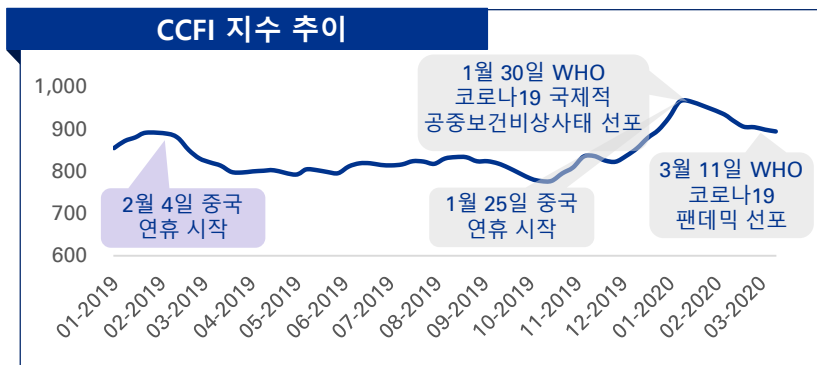
#### 항공 산업에 전반적인 타격이 불가피

- 운항 편수뿐만 아니라 운항 편당 이용객 수 역시 큰 폭으로 떨어져 항공사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유럽 및 미국 확진자가 급증하며 이용률은 더 떨어질 전망
-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은 단축근무, 임금 삭감 등 비상경영 체제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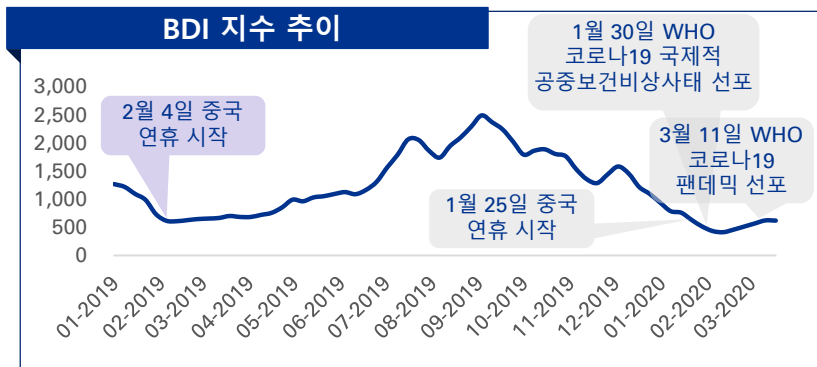
## 해운 » 중국 중심 물동량 감소로 해운업 위축 불가피

해운업계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물류체계 혼란과 함께 운송수요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 특히 중국 중심의 컨테이너 물동량과 철광석 소비량의 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컨테이너 물동량(CCFI) 및 BDI 지수 추이



Source: Clarksons, 삼정KPMG 경제연구원



Source: Clarksons, 삼정KPMG 경제연구원

### 코로나19로 인한 해운 산업 영향

#### 생산위축, 물류 장애로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 2020년 1월 기준 극동-유럽 노선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
- 특히 1월 20일 이후 상하이, 닝보항 등 중국항만의 항만 물동량이 일일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향후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임
- 2M은 아시아-북미, 지중해항로에 대한 임시결항을 연장했으며, 오션얼라이언스도 아시아-지중해 서비스에 대한 추가 임시결항을 발표함

#### 원자재 수요 감소로 건화물선 시장 우려 확산

-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후베이성 등 산업단지 내의 공장운동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며, 이는 철광석, 석탄 등의 원자재 수요 감소로 이어질 전망
- 특히 중국이 철광석 소비량이 전 세계 65%를 차지하면서 드라이벌크 해운 부문은 심각한 영향을 입을 것으로 보임

## 호텔 » 객실, 부대시설 이용객들 모두 감소, 충격의 여파는 클 것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줄어들면서 객실 수입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내국인들의 단체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부대시설 수입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우려됨

### 코로나19로 인한 호텔 산업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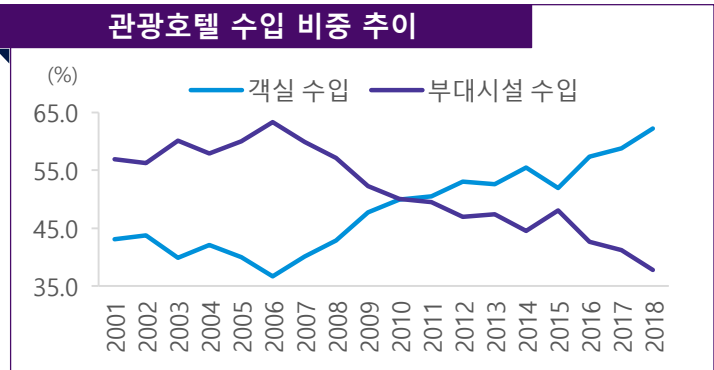
객실 수입은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 특히 지난 10년간 외국인 관광객에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 상황, 그 여파는 과거 대비 더욱 클 것으로 전망

- 2018년 기준 관광호텔의 영업 수익 중 객실 및 부대시설 수입 비중은 각각 61.7%, 38.3%를 차지. 2006년 객실 수입 비중이 저점을 기록한 후 상승 추세를 보임
- '13년~'18년 관광호텔 이용객 중 객실 이용객의 외국인 비중은 44.2%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관광객에 의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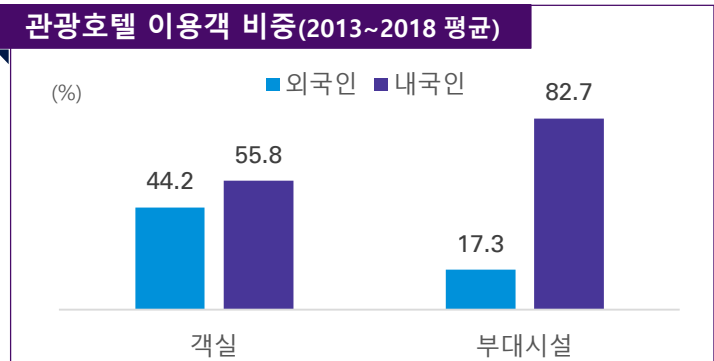
단체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 조치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호텔들의 부대시설 매출 감소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내국인들 고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결혼식 등 각종 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어 호텔 부대시설 매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됨
- 특히 부대시설 수입 비중(2018년 기준 51.4%)이 높은 5성급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매출감소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

### 국내 관광호텔의 외국인 관광객 의존도



Source: 한국호텔업협회



Source: 한국호텔업협회

## 패션·의류 》 패션·의류 내수 부진 및 수출입 악화 등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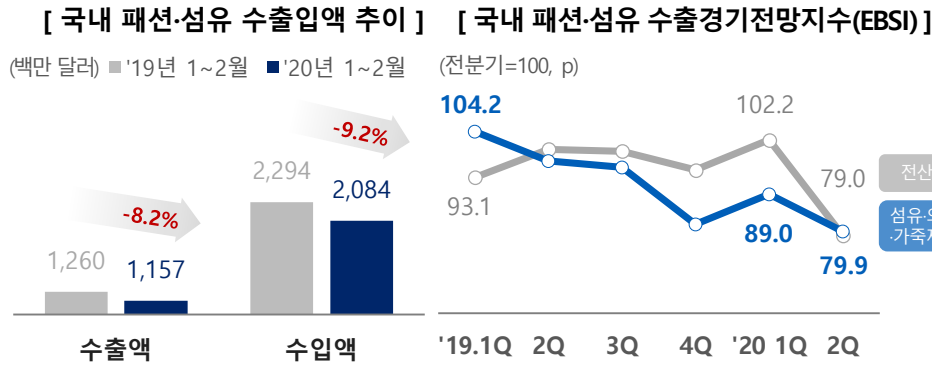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모를 가꾸기 위한 품목에 대한 소비 감소세 이어지며 패션·의류 관련 온·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아울러 원부자재 수급 차질, 국제유가 하락,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수출입 규모 또한 감소세로 패션 유통 업체에 부정적 영향 예상

### 패션·의류산업 현황

#### 패션·의류 매출 추이

-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패션 품목 매출 감소세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야외활동 축소, 재택근무 영향에 따라 외모 가꾸기 위한 패션 소비 감소
- 종합물, 소셜커머스, 전문몰·자사몰 등 온라인 채널의 경우 오프라인 매출 감소에 비해 온라인 매출 상승효과 미미
- 전반적인 패션 품목에 대한 소비 위축 영향

#### 의류 및 섬유 수출입 현황 및 전망



Source: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패션·섬유 업종 수출액은 섬유·의복·의류 수출액의 합계이며, 수입액은 의류·섬유류 수입액의 합계

### 코로나19로 인한 패션·의류 산업 영향

#### 온·오프라인 패션·의류 품목 매출 부진

- 오프라인 매장의 패션 품목 감소세 지속
- 온라인 채널 역시 오프라인 매출 감소 대비 매출 상승효과 크지 않아 반사이익 '미미'

#### 패션 유통 업체, 의류 소싱 차질 및 수출 경기 악화 전망

- 의류·섬유 수출 업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원부자재 수급 악화로 공장 가동 차질 불가피
- 2020년 1~2월 패션·섬유 수입액 전년동기대비 9.2% 감소
- 의류·섬유 업종 국제유가 하락 및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수출 감소세
- 섬유·의복·가죽제품 수출경기전망지수 -9.1p ('20.1Q 89.0 → '20.2Q 79.9)
- 2020년 1~2월 의류·섬유 수출액 전년동기대비 -8.2%, 수입액 전년동기대비 -9.2%

## 반도체 《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받겠지만, 극복 가능한 수준

'20년 2월과 3월 반도체 수출은 늘어났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전방 산업의 수요 위축으로 인해 반도체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생산에 차질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도체 업계는 공급량을 조절해가며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가 반도체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

영향	반도체 수요	반도체 공급
<b>부정적 측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 심리 위축과 경제 활동 제한으로 스마트폰, PC 등 IT 제품의 판매 부진이 예상됨</li> <li>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방 산업의 침체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li> <li>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서버 수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미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AMAT 공장 가동 중단</li> <li>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는 '20년 글로벌 팹 장비 투자액을 580억 달러에서 578억 달러로 하향 조정</li> <li>미세 공정, 기술력으로 차별화를 꾀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은 신규라인 증설 차질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li> </ul>
<b>긍정적 측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미와 중국에서 게임·영화 등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li> <li>온라인 트래픽 증가는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를 견인할 요인</li> <li>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와 컴퓨팅·서버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기업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겪으며 소재 비축량을 늘리는 등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임</li> <li>반도체 공정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어, 타 제조 산업보다 노동력 부족 및 인력 이동 제한의 영향이 적음</li> <li>현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공장 가동에 문제 없이 생산을 이어가고 있음</li> </ul>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영향 분석

#### 단기적으로 반도체 업계의 실적 전망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시장에서 소화하기 힘든 악성 재고가 증가해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코로나로 인해 스마트폰, PC 등 IT세트 제품의 반도체 수요는 감소하겠으나, 서버용 반도체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반도체 수요가 촉진될 가능성도 있음

#### 반도체 공급보다 수요 측면에서의 회복 속도가 반도체 업계의 영향을 좌우할 것

- 반도체 수요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으나, 반도체 기업들 또한 공급을 감소시키며 시장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
-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은 재고 감소에 주력하며 설비 투자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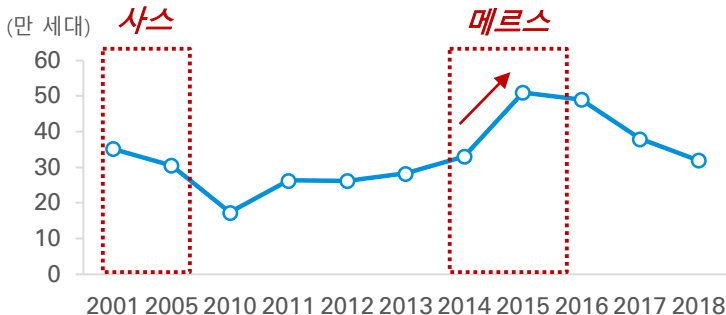
## 건설 《 국내시장의 여파는 제한적, 해외시장은 수주 축소 우려

국내 건설시장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SOC 지원 예산이 발표되고 있으며, 연간 분양실적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다만 해외 건설시장의 경우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인해 현장관리 문제 발생, 장기적으로는 수주활동까지 제한될 우려가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건설 산업 영향

- 지난 2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집행과 도시재생사업 투자 등 지원책을 제시
  - SOC 예산의 60.5%인 28조 6천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
  - 노후 주거지 및 쇠퇴한 구도심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1조 7천억 원을 상반기내 1조 1천억 원(65%)을 사용할 예정
- 국내 주택시장은 대구·경북 등 일부 사업장의 분양일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하지만 과거 사스와 메르스 시기를 살펴본 바, 연간 분양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 됨

< 사스 · 메르스 시기 분양물량 추이 >



Source: 부동산114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건설 산업 영향

- 최근에는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인해 현장관리와 수주 활동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발주 축소도 우려
- 입국금지 조치가 장기화 될 경우, 해외 현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인력들의 이동이 불가능하여, 현지 현장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향후 해당 국가에서의 수주 활동에 제한이 우려됨

< 입국금지 국가 주요 건설 현장 >

건설사	주요 프로젝트
GS건설	바레인(LNGIT), 오만(LPIC), 카타르(도하메트로), 싱가포르(T301 차량기지외와 NSC N101 고속도로)
삼성엔지니어링	바레인(BNP 정유플랜트), 오만(두쿰 정유플랜트)
대우건설	오만(두쿰 정유플랜트), 카타르(카타르 E-RING 도로), 에티오피아(에티오피아고속도로)
SK건설	영국(런던 실버타운 터널), 카자흐스탄(알마티 순환 고속도로) ※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싱(PF)만 완료, 착공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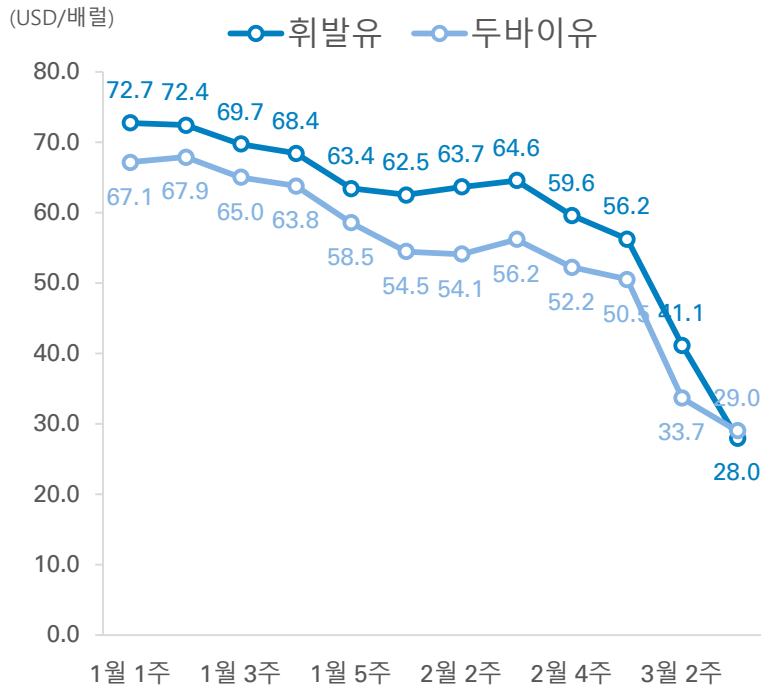
Source: 키움증권



## 정유·석유화학》 수요 감소로 인한 유가 하락의 영향

전 세계 석유제품 수요가 가파르게 감소하며 정제 이후 제품 가격이 원재료 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면서 정제마진이 하락함. 반면, 유가 하락으로 납사 가격이 떨어지는 가운데, 중국 내 석유화학 제품 수요세가 회복되며 석유화학사의 수익은 개선될 여지가 있음

### 두바이유 및 국제 휘발유 가격 추이



Source: Petronet

Note: 휘발유는 92RON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정유·석유화학 산업 영향

#### 정제마진 하락으로 인한 정유사 수익성 악화

- 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평균 29.01달러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제품인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27.98달러를 기록함 (3월 3주차 기준)
- 글로벌 주요 도시 전역에서는 교통 혼잡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도로주행용 연료 소비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 원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석유화학사

- 유가 하락으로 원료인 납사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며, 합성섬유체인은 미국, 유럽 폴리에스터 수요 부진으로 원료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석유화학 수요의 30~40%를 차지하는 중국의 전방 산업 가동률이 점차 상승 중에 있으므로, 화학제품 스프레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철강 》 중국산 철강 제품의 재고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방 가능성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내 철강 수요 산업의 조업이 잇따라 중단됨에 따라,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량이 급감하고 재고량이 급증하는 등 중국 내 수급에 차질이 발생. 이로 인하여 국내 제품 역시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업체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발생함

### 중국 주요 품목별 재고량 추이

(만 톤)

구분	시중 재고		생산자 재고	
	'20. 2	'20.3	'20.2	'20.3
철근	1,278.25	1,380.45	760.44	776.34
선재	438.08	453.14	208.43	211.35
열연	367.15	393.58	192.35	186.03
후판	150.15	150.90	123.72	113.71
냉연	145.49	156.43	57.28	63.05
<b>종합</b>	<b>2379.12</b>	<b>2,534.50</b>	<b>1,342.22</b>	<b>1350.48</b>

Source: 마이스틸, 스틸데일리

Note: 시중 재고(132개 도시 370개 창고), 생산자 재고(29개사)

### 코로나19로 인한 철강 산업 영향

#### 중국산 철강 제품의 재고량 급증

-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송 차질, 수요 감소, 가격 하락 등 원인으로 중국 내 철강재 재고가 늘어나고 있음
- 계절적 비수기인 겨울부터 재고량이 늘어나던 추세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방 산업인 자동차, 가전 등 생산공장 및 철근 소비가 많은 공사현장 운영 중단 조치로 인해 재고량이 급격하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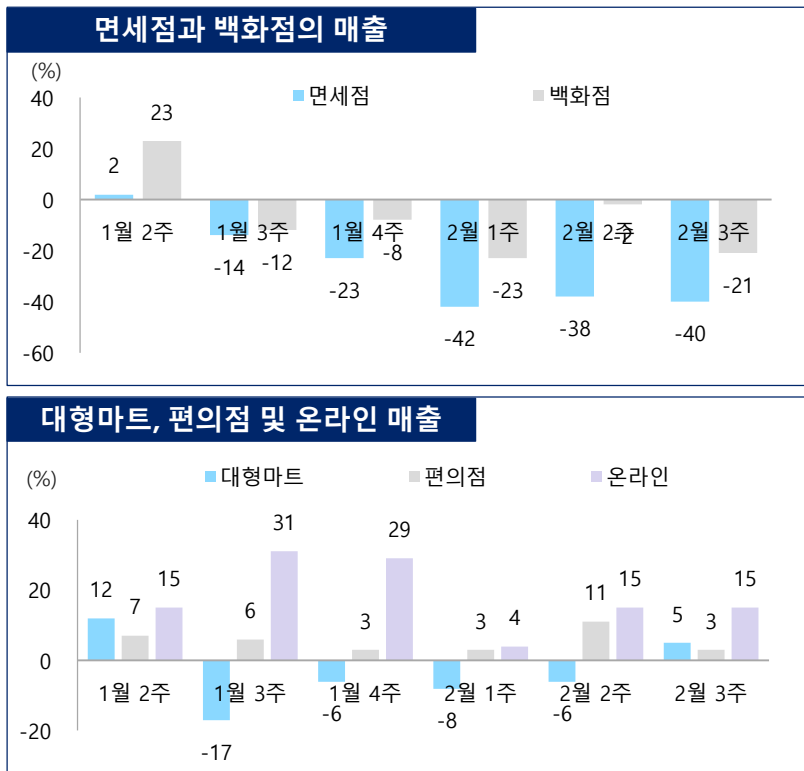
#### 국산 제품의 가격 협상력 약화

- 중국 현지 철강 수급이 악화될 경우, 추후 중국의 철강재 수출량 확대에 따른 국내 및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짐
-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기업들은 2020년 상반기 조선용, 자동차용 등 주력 철강재에 대한 가격 인상을 기대하였지만, 중국발 가격 하락 악재 및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으로 가격 협상력 약화

## 유통 》 유통 채널별 양극화 현상(온라인 vs. 오프라인)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여행 및 외출 자제 등으로 인하여 오프라인 채널은 큰 타격을 받는 반면 온라인의 경우 반사 이익을 얻는 것으로 분석됨. 면세점과 백화점은 2020년 1~2월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으나 온라인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유통 시장의 재편이 예상됨

### 유통 채널별 매출 추이(2020년)



### 면세점·백화점 vs. 대형마트·온라인·편의점

#### 면세점 및 백화점은 부정적

- 해외여행의 감소와 높은 외국인 의존도를 가진 면세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당분간 매출 감소 지속
- 대외 활동 위축, 확진자 방문에 따른 일시적 영업 정지로 백화점 실적도 타격을 입고 있음

#### 온라인 및 편의점의 반사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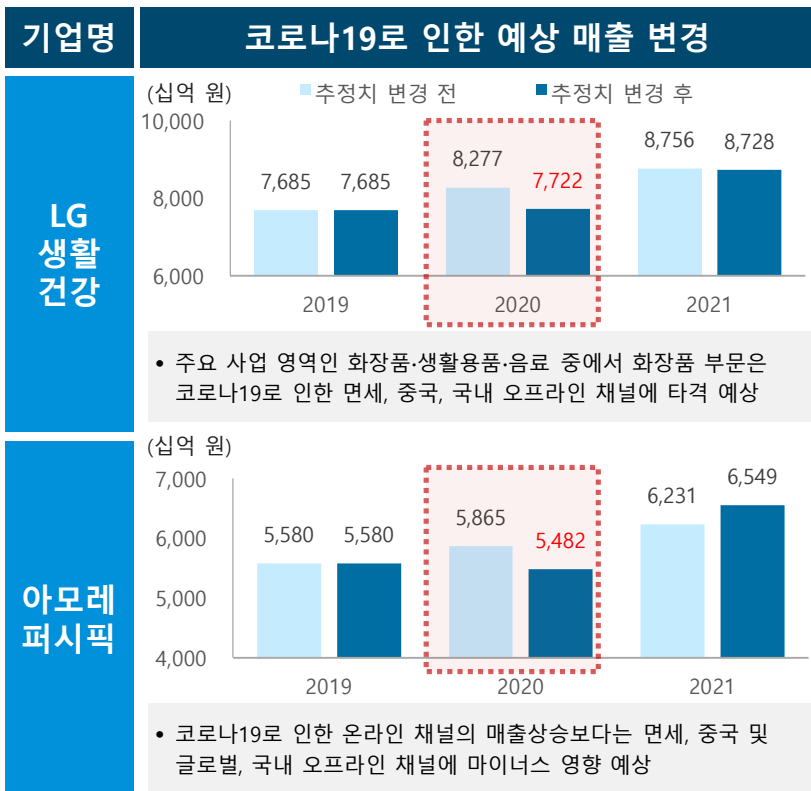
- 식료품이 주요 수요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형마트는 코로나19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근거리 채널이나 비대면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편의점과 온라인 매출은 상승 추세
-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을 집밥으로 대체하는 소비자가 많아짐에 따라 대형마트, 편의점 및 온라인 유통은 신선식품, HMR 위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Source: 한화투자증권, 법무부, 여신금융협회, 각 유통업체,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요일 차이에 따른 왜곡 방지를 위해 전년 동요일 비교를 원칙으로 하며 설연휴를 감안하여 조정

## 화장품 《 면세 및 수출 감소에 따른 일부 영향 예상

주요 화장품 기업의 온라인 매출은 상승하는 반면 면세, 수출 및 국내 오프라인의 매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견고한 이커머스 채널과 고객을 확보하고 소독·세정 분야와 더마코스메틱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한 화장품 기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덜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화장품 기업의 2020년 실적 전망 변경



Source: 유안타증권,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코로나19로 인한 화장품 산업 영향

####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커머스

- 외출 자제와 감염에 대한 우려로 '언택트(Untact)' 소비 트렌드가 가속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주문 증가
-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월 모바일을 통한 화장품 거래액은 1조 1,2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4% 증가

#### 선제적 사업다각화의 중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위생과 피부 트러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선제적으로 제약이나 더마코스메틱으로 사업다각화를 한 기업의 경우 위기를 기회로 전환
- 주요 화장품 OEM·ODM업체인 코스맥스는 손소독제 및 세정제의 판매로 인한 리스크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는 중
- 더마코스메틱으로 사업확장을 한 동국제약은 재택근무 등으로 인한 홈쇼핑 채널을 통한 화장품 매출이 증가하여 1분기 매출 198억 원 예상

# 식음료 » 배달·온라인 식료품 구매 패턴 변화로 매출 부진 상쇄

식음료 중 주류·식자재·외식 업종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온라인 식품 구매 확대 및 내식(가정 내 식사) 증대, 식료품 집중 구매 등으로 인해 일부 라면, 통조림, HMR 등 가공식품과 배달외식,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식음료산업 업종별 영향

구분	영향	기능
식품	일부 부정적 · 일부 반사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활동 축소와 함께 이커머스를 통한 사재기 현상 발생으로 라면, 통조림, HMR(가정간편식, Home Meal Replacement) 식품군은 소비 확대 전망</li> <li>온라인 식품 구매 빈도 증가하며 온라인 채널 확보 기업은 반사이익</li> </ul>
주류	부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활동·회식 빈도 감소 및 면역력 강화에 대한 소비자 관심 확대로 맥주·소주 등 주류의 일시적 매출 부진. 특히 업소용 주류의 매출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li> </ul>
식자재	부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자의 외부활동 축소로 외식·컨세션(식음료 위탁운영) 등은 매출 부진, 단체 급식의 경우 각 산업체 개별 상황 및 재택근무 이슈에 따른 부정적 영향 존재</li> </ul>
외식	부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문외식은 고객 유입 감소로 일부 부정적 예상되나 배달앱 등을 통한 내식 증대로 일부 상쇄</li> </ul>
음료	영향 미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식 경로의 매출 부진을 배달음식 수요 확대로 상쇄</li> </ul>
생수	반사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염 예방을 위해 물 자주 마시기 등의 권고사항, 집에서 보내는 시간 증대로 생수 소비 급증</li> </ul>
건강기능식품	반사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 관리를 비롯한 면역력 강화를 돕는 건강기능식품 전반으로 소비자의 관심 증대되며 신규 구매자 증가</li> </ul>

## 코로나19로 인한 식음료 산업 영향

<p><b>식음료 업종, 일부 부정·일부 영향 제한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음료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채널 및 외식 경로를 통한 음료 매출은 감소 예상</li> </ul>
<p><b>이커머스 통한 식품 구매, 배달음식 수요 확대 등 일부 업종 반사이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커머스를 통한 식료품 구매 확산, 일부 식료품의 집중 구매 현상으로 라면, 통조림, HMR, 생수 등의 식음료 업종 반사이익 예상</li> <li>감염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및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생수 및 건강기능식품 업종 반사이익 수혜 예상</li> </ul>
<p><b>주류·식자재·외식 업종 일부 부정적 영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식활동(회식, 단체모임 등) 빈도 감소로 주요 주류의 일시적 매출 부진 예상</li> <li>외식 업체의 경우, 방문외식 수요는 감소하나 배달앱 주문 수요 확대가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li> <li>식자재 업종 역시 외식·컨세션 중심으로 매출 부진 예상되며, 단체 급식의 경우 재택근무로 부정적 영향 받을 가능성</li> </ul>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 영화·영상 미디어 》 OTT는 긍정적, 극장에는 부정적 영향 전망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게임 산업과 유사하게 사람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OTT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용 시간이 크게 증가. 반면 밀폐된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 시청하는 영화관은 관람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큰 타격이 예상됨

###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시간 증가

#### 전 세계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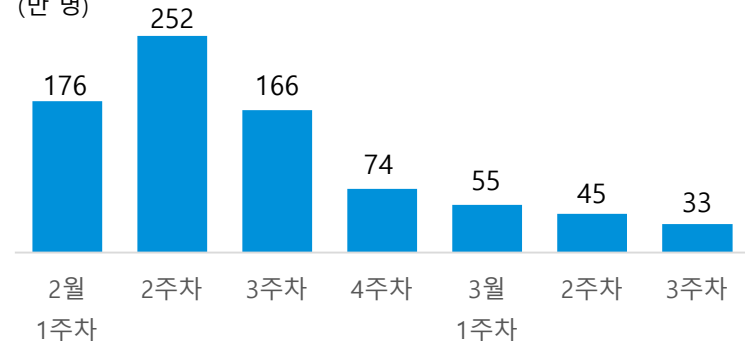
-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는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유럽에서의 영상 스트리밍 품질을 하향 조정하는 등, 전 세계 OTT 서비스 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구글 유튜브와 디즈니플러스, 아마존 프라임도 유럽에서의 영상 품질을 낮추는 조치를 취함

#### 국내에서도 OTT를 중심으로 한 이용 증가

- 국내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 GS네오텍에 따르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의 '20년 2월 트래픽(인터넷 사용량)이 전월 대비 44% 증가
- 국내 OTT 서비스 '웨이브'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년 1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스트리밍 시청 시간이 16.4%, 영화 구매량이 19.2% 증가했다고 밝힘
- 같은 기간 KT의 OTT '시즌(Seezn)'도 실시간 채널 시청 횟수가 14%, 주문형비디오(VOD) 구매 횟수가 10% 상승
- 한편, 국내에서는 영화관 관람객의 급격한 감소로, 2월 26일 개봉 예정이었던 제작비 100억 원 규모의 스릴러 영화 '사냥의 시간'이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4월 1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하기로 결정

### 극장 영화 산업에는 큰 타격 예상

<'20년 2월 1주차~3월 3주차 국내 주간 영화관람객 추이>  
(만 명)



Source: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 '20년 2월 2주차에 252만 명이었던 국내 주간 영화관람객은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해, 3월 3주차에는 33만 명까지 감소
-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년 2월 국내 총 영화관람객은 737만 명, 매출액은 623억 원으로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 국내 최대의 멀티플렉스 체인인 CGV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3월 28일부터 국내 35개 지점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발표

## 게임 《 코로나19로 일부 서비스 분야 수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은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이용 시간 증가와 매출 확대 등의 수혜가 기대됨. 다만, 다수의 관중이 집결해야 하는 e스포츠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PC방 시장은 침체가 예상됨

### 전 세계 게임 산업, 코로나19로 긍정적 영향 전망

#### 코로나 먼저 확산된 중국에서는 게임 이용량 증가

- 게임분야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는 '20년 2월 중국 앱스토어 게임 다운로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62% 폭증했다고 밝힘
- 모바일 데이터 분석 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20년 2월 한달간 중국의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는 '19년 연간 평균치 대비 무려 80% 증가
- 코로나 확산이 먼저 시작된 중국에서는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게임 이용량이 크게 늘어남

#### 유럽, 미국 등에서도 게임 이용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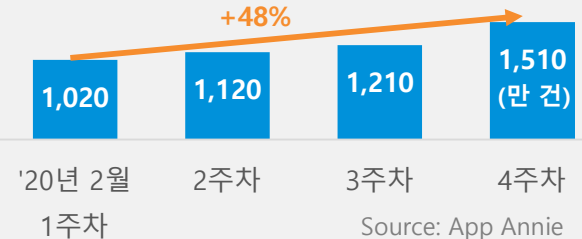
-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게임 이용 시간과 매출이 증가하면서 중국과 유사한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3월 26일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47만 명을 넘어서고, 외출 및 이동 제한을 실시하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이용률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국내 게임 시장에도 대체로 긍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  
 모바일 게임

- 앱애니는 국내 안드로이드 게임 다운로드 건수가 '20년 2월 1주차 1,020만 건에서 4주차 1,510만 건으로 48% 증가했다고 발표
- 또한 앱애니에 따르면, '20년 2월 4주차 국내 모바일 게임 이용자 주간 지출액이 9,160만 달러로, 확진자가 급증하기 직전인 2주차(7,840만 달러)보다 16.8% 증가

<'20년 2월 1~4주차 국내 안드로이드 게임 다운로드 건수>



부정적 영향  
 ↓  
 e스포츠  
 PC방

- 반면, 다수의 관중이 현장에서 관람하는 e스포츠는 대회가 연기·취소되거나 무관중으로 치러지면서 침체를 맞음
- 여러 사람이 모이는 PC방과 주로 PC 방에서 플레이하는 온라인 게임도 시장 침체 예상됨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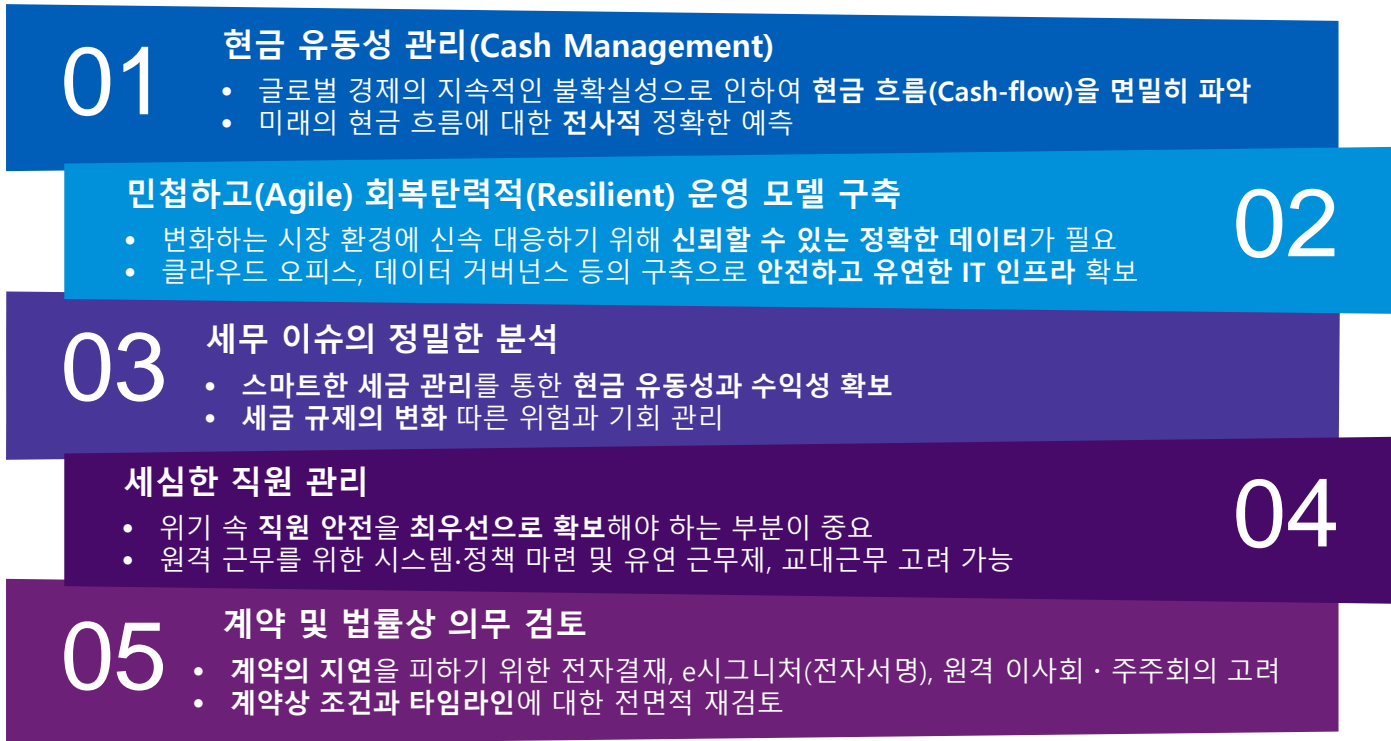
	Page
I. 산업별 영향 Snapshot	2
II.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4
III. 코로나19의 기업 위기 대응 전략	23
IV.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	25



## 코로나19의 기업 위기 대응 전략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만들고 있음. KPMG는 기업이 위기 관리를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들의 위기 대응 전략



Source: KPMG, 삼성KPMG 경제연구원

# Contents

	Page
I. 산업별 영향 Snapshot	2
II.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4
III. 코로나19의 기업 위기 대응 전략	23
<b>IV.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b>	<b>25</b>

# Actions

현재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사안으로 ▲ 리스크/시나리오 확인 및 평가, ▲ 재무적 영향력 모델링과 유동성 평가, ▲ 단기적 현금 흐름 예측을 통한 여유 자금 파악을 꼽을 수 있음. 기업은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만약 향후 몇 주 동안 현금과 자금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상황이 호전될 것임

## 0-4

주(weeks)

- 운영과 공급망에 걸친 핵심 리스크 파악
- 위기 대처와 관리, 공급망 관리를 위해 신속한 팀 운영 필요
- 신속한 핵심 의사 결정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 확립
- ▲빠른 경기 회복 ▲글로벌 경기 둔화 ▲글로벌 팬데믹과 경기 침체로 구분해 사업적·재무적 시나리오 계획 수립

## 1-3

개월(months)

- 항공, 해운, 육상 교통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평가해 운영과 공급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
- 핵심 고객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지속
- 인력 운영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및 평가
- 섹터별 영향력에 대한 단계적 분석

## 4+

개월(months)

- 신속하고 가시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
- 파괴적 영향력을 완화하면서 디지털/프로세스 자동화 도입
- 향상된 위기 관리 실행 방안 개발 및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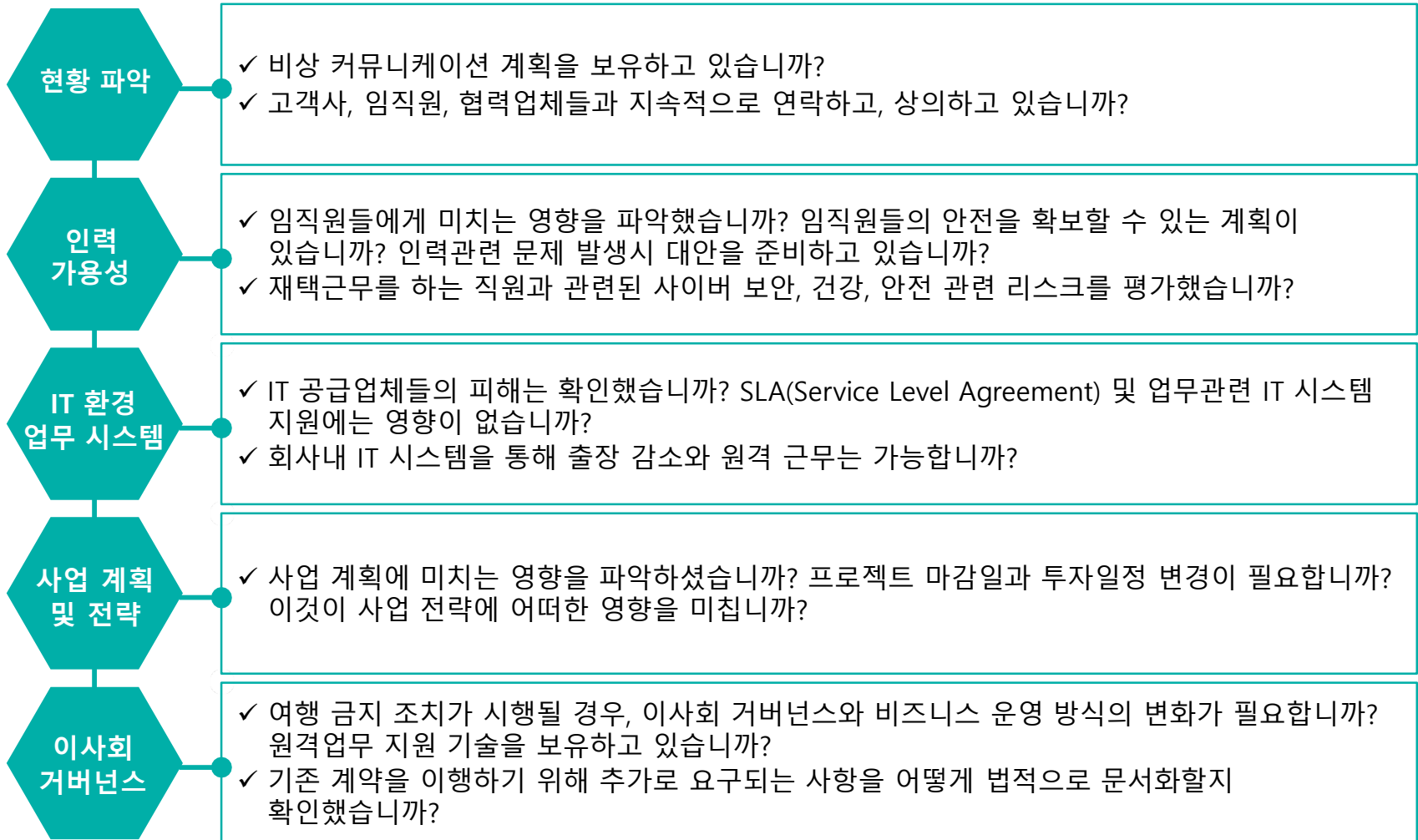
## Observations

- 중국의 생산 공장 가동 중단
-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 확대
- 불가항력에 직면한 공급업체의 상황
- 입출국자 및 수출입 물류 검역 체크에 따른 지연
- 공항 및 항만의 이동 정체 및 운송 취소
- 중국에서의 아웃바운드 생산량 감소 및 생산 가격 상승
-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성 및 육상운송 역량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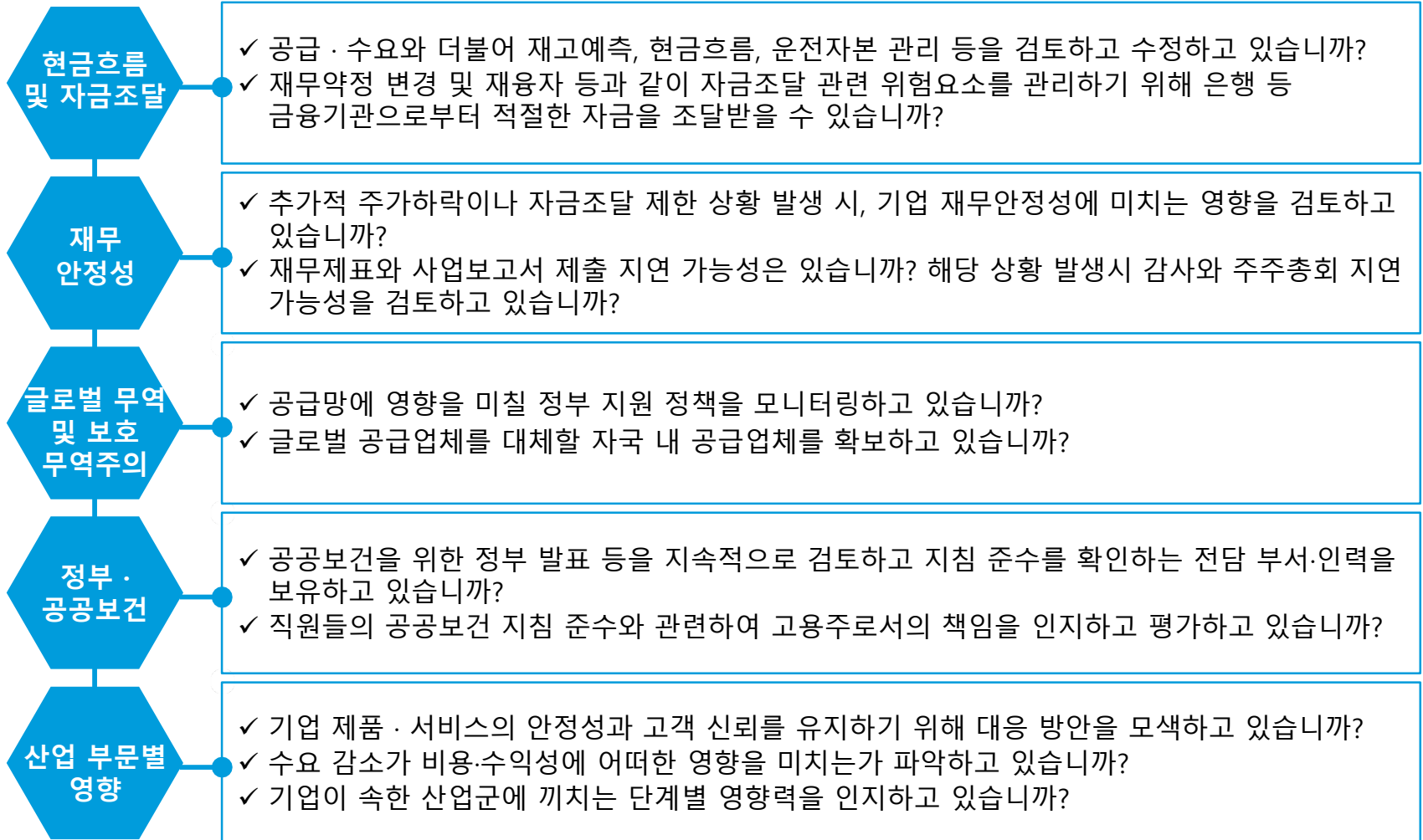
**기업의 대응 방안:** 컨틴전시 플랜 수립, 시나리오 모델링, 운영 및 공급망 리스크 관리, 재무 리스크 진단, 비즈니스 회복탄력성(Resilience), 디지털 전환, 공급망 트랜스포메이션

## Business imp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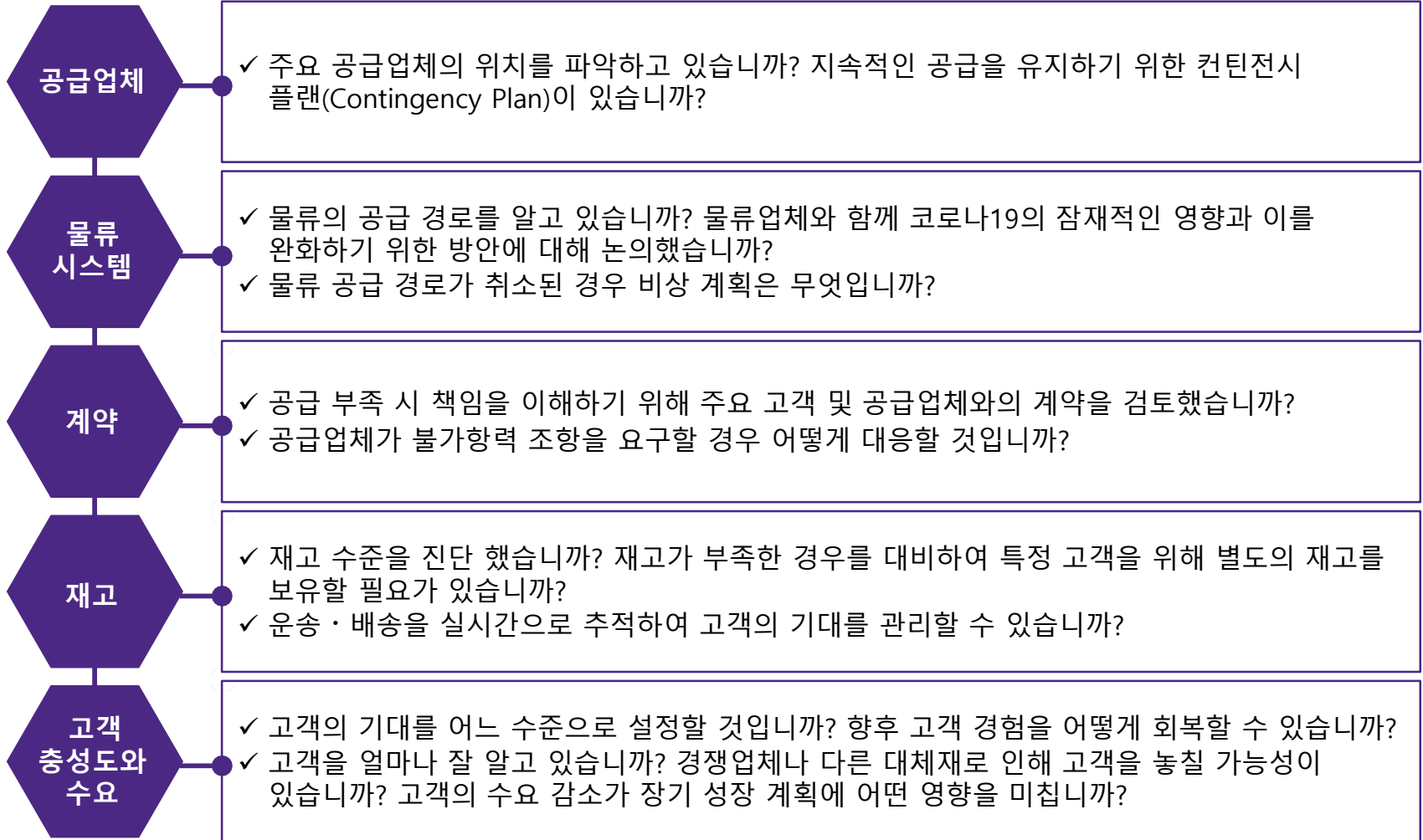
Source: Global KPMG

## Financial & external fa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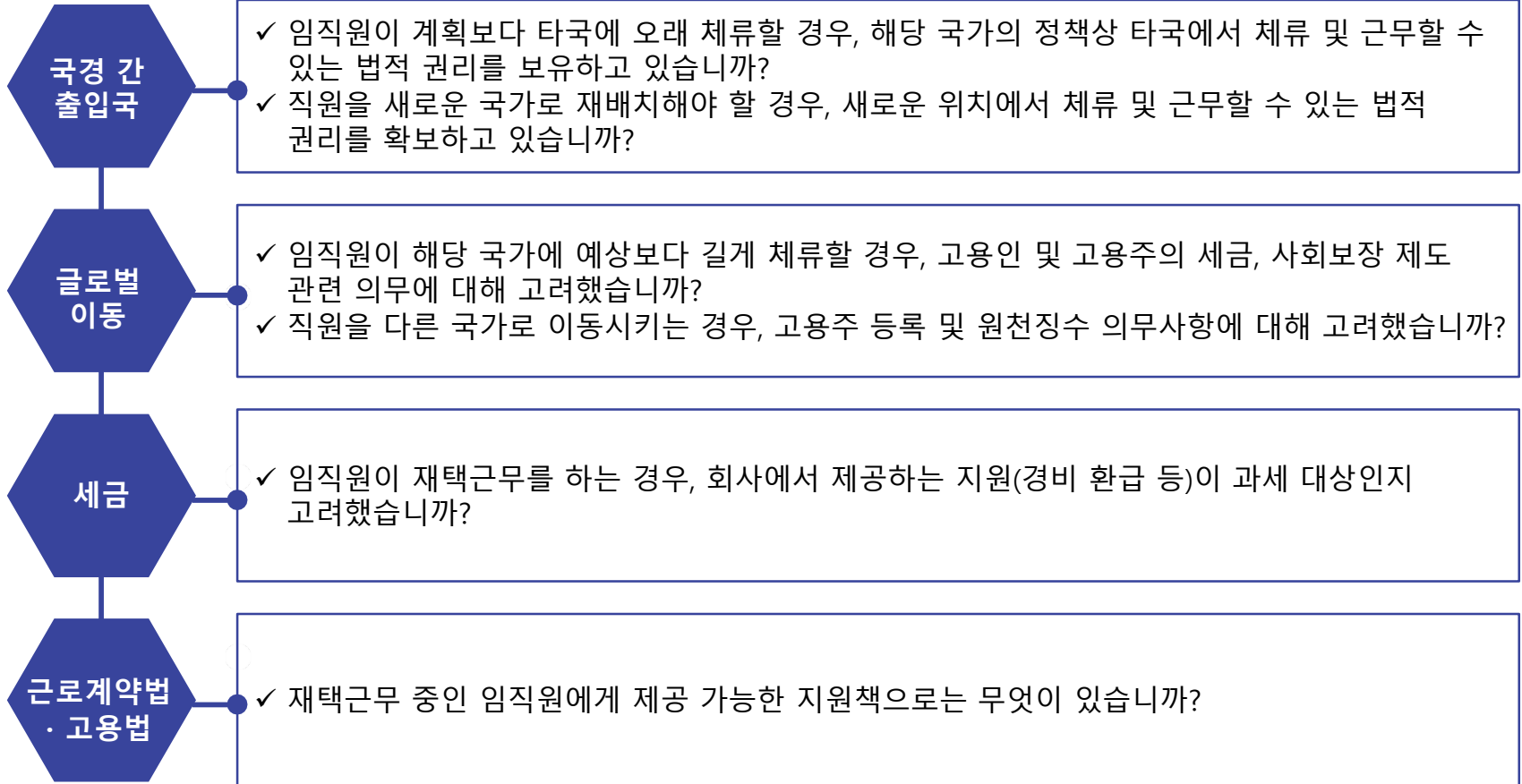
Source: Global KPMG

## Supply chain & operations



Source: Global KPMG

# People



Source: Global KPMG

# Business Contacts

## Industry Leader

### 금융산업

조원덕

부대표

T: 02-2112-0215

E: wcho@kr.kpmg.com

### 유통·소비재산업

신장훈

부대표

T: 02-2112-0808

E: jshin@kr.kpmg.com

### 전자·정보통신·반도체산업

양승열

부대표

T: 02-2112-0330

E: seungyeoulyang@kr.kpmg.com

### 자동차산업

위승훈

부대표

T: 02-2112-0620

E: swi@kr.kpmg.com

### 제조·건설산업

변영훈

부대표

T: 02-2112-0506

E: ybyun@kr.kpmg.com

## Advisory

### Strategy Consulting Service

이동석

전무

T: 02-2112-7954

E: dongseoklee@kr.kpmg.com

윤권현

상무

T: 02-2112-7495

E: kyoona@kr.kpmg.com

### Management Consulting

장지수

부대표

T: 02-2112-7577

E: jjang@kr.kpmg.com

박상원

전무

T: 02-2112-7012

E: sangweonpark@kr.kpmg.com

## kr.kpmg.com

© 2020 KPMG Samjong KPM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